

하나됨과 나눔

## “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

< 마태복음 6장 33절 >

- 다음 주는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는 야외 예배로 드립니다. 다.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 다음 주일 오후 2시에는 사랑방운동회로 모입니다. 편한 복장과 방별로 도시락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10월 9일(수)에 있을 공동체학교 선교바자회를 위한 기념물품은 10월 6일(일)~8일(화)까지 받습니다.
- 대한예수교장로회 제 109회 총회가 24일(화)~26일(목)까지 창원 양곡교회에서 모였습니다.
- 성서일기 진도가 요나서에서 예레미야 애가로 바뀝니다.
- 외국의 기독교학교 교사 11명이 9월 30일(월)~10월 6일(일)까지 방문하십니다.
- 비움 사랑방 최창수, 정혜옥 집사의 장남 최현준 군과 박신혜 양의 결혼식이 5일(토)에 있습니다. 예식장소는 W스퀘어(판교) 8층 채플 홀, 시간은 오후 3시 30분입니다.

###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박태규 · 전향옥 집사 가정 ( 결혼기념 )

한호남 · 정승희 집사 가정 ( 감사 )

강단을 꽃으로 :

신협(현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추일 교회 종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지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1 - 39 호  
2024년 9월 29일

#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은  
사  
랑  
방

주인이 기뻐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 영혼을 위한 운동

오래간만에 소풍길을 걸었습니다.  
그루터기 뒷산에서 내누리 포도밭을 지나 용암산으로 해서 무지랭이 계곡까지 다녀온 4코스의 길은 삼림욕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우거진 숲길을 걸을 수 있는 코스입니다.

아침에 일찍 나섰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많은 분들이 산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쉬는 쉼터에서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머니 한분과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82세이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60세에 등산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금강산도 두 번이나 다녀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심장시술도 하시고 허리를 3번이나 다치시는 일도 있었지만 지금도 매일 2시간이상씩 걷고 산에 오른다고 하시는 할머니를 보니 정말 운동의 힘이 위대 하구나 세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번 산행은 피톤치드를 한 가득 마시고 맘을 홀리며 지방을 태운 것 보다 이 낯선 어르신과의 잠깐의 만남이 더 큰 소득이었습니다. 몸을 단련하고 꾸준히 노력하면 82세의 나이에도 이렇게 산을 매일 오를 수 있구나 라는 도전과 함께 더 큰 깨달음을 준 만남이었습니다.

지금 현대인들은 자신의 몸을 단련하기 위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이슈는 다양한 운동의 유행을 가져와서 얼마 전까지도 걷기를 비롯한 등산이 유행이었다면 지금은 달리기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 제테크라는 신조어가 생길만큼 근력운동이 또 다른 유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건강보조식품도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그 시장규모가 6조원을 넘

어섰다고 합니다. 건강보조식품 산업은 계속 성장세를 이어가며 앞으로도 유망한 사업으로 꼽힙니다.

이토록 몸에 투자를 하는 것은 건강한 몸으로 오래 살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육신 뿐 아니라 영도 함께 하는 존재입니다. 육에 대한 관심은 너무나 높아지는 반면 우리 영혼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작년 조사에 따르면 개신교 인원이 10년새 6%정도 감소하였는데 20-40대의 감소율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종교가 없다는 사람이 국민의 절반을 넘어섰으며, 종교가 있어도 종교 활동은 하지 않는다는 사람의 비율이 절반 정도라 하니 신앙의 건강성을 잃어가는 증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드리는 한 번의 예배로는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지켜가기 어렵습니다.

매일 걷기를 하듯이 매일 기도의 시간을 따로 정하여 기도해야 하며, 건강한 음식을 먹듯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채워야 합니다.

방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돌보며 귀한 사귀음을 가지는 것은 그 어떤 건강보조식품을 먹는 것보다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건강하게 해주는 길입니다.

어린이들의 구호가 떠오릅니다. 말.기.찬! 말씀, 기도, 찬양 이것을 꾸준히 행할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의 장수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영의 건강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영적인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단련함으로 80세를 넘어 하나님 나라에 돌아갈 그 날까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까.

디아코니아사랑방 장영미 전도사

## 한주간 말씀

“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

< 야고보서 5장 10절 말씀 >

## < 수요기도회 >

인도 : 최기찬 전도사

찬송 : 491 357 383 / 585

기도 :

성경 : 요엘 3장

제목 : 그때에는 하나님임을 알아야 한다

1-8절 이스라엘의 번영과 회복 약속

해석: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민족을 기억하고 계신다.

적용: 어려움 중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아신다는 것을 잊지 말자.

9-15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

해석: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의 어떤 군대보다 강하다. 심판받는 민족은 희망이 없다.

적용: 하나님과 맞서싸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16-21 심판의 날에 하나님임을 알자.

해석: 이스라엘 백성이 징계를 받고 흩어져 사는 백성이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복을 더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임을 알기 위해서다.

적용: 하나님을 기억하자. 우리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는 과정이다.

## 성서일기

## 아들의 특별

작년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이야기 꺼낸 후, 우리 때와 결혼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들어서 알기는 했지만... 아들은 어느 날 결혼 날짜를 잡았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결혼식 날짜는 예식장에 맞춰서 정해지기 때문에 예식장이 비어 있는 날이 결혼식 날이 됩니다. 우리 때는 양가 부모님의 합의나 몇 개의 날짜 중에 택일해서 했는데, 이제는 예식장을 대관할 수 있는 때가 결혼식 날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여자친구를 소개해 주겠다고 해서 예약해 놓은 식당으로 가서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아들을 30년간 키우면서 처음 있는 일이라 우리 부부도 긴장되고, 설레기도 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살짝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래도 예비 며늘아가가 더 긴장했을 것 같아 조그마한 꽃다발을 준비하고 가서 꽃을 주면서 반갑다고 안아주고, 밥 먹기 전에 기도도 해주며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혼자 엄청 떠들며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늘아기한테 결혼하면 '내 아들이 아니라 너의 남편이다'라고 확인을 시켜주었습니다.

식장을 예약한 지 1년이 됐고, 빨리 오지 않을 것 같은 날이 다가 왔네요. 다음 달 10월 5일 아들은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라는 창세기 2장 24절 말씀대로 장가를 갑니다.

이제는 한 가정의 가정으로 잘 살아가길 기도하는 것이 엄마인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네요.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으리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네

'어머니의 기도'라는 찬양이 저에게 기도하라고 입에서 맴도네요.

비움사랑방 정혜옥 집사

## 지체들의 삶

##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 교

###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 표는 일어선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듣는 이들

안내 : 이용신 / 이정행 / 봉헌위원 : 하경임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 이근자 / 정다운 / 임은숙 / 이예은  
진시우 / 김보경 / 진나우

## 공동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중에 시련과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인내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 고난을 이기는 기도

야고보의 권면. 예루살렘 박해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향해서 직접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실천을 강조하였습니다. 믿음의 실천을 강조한다는 것은 그런 모습이 많이 사라진 것을 의미합니다. 디아스포라 공동체들에게는 시련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속되는 갈등. 고난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연스레 원망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원망의 마음이 마음으로 발전하고 원망의 마음이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만듭니다. 서로 원망하는 것은 아무런 상황도 바뀌지 않습니다. 원망은 누구도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망가뜨립니다.

고난을 이기는 기도.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시련은 걸려 넘어지는 시험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인격의 성숙을 이끌어 냅니다. 그 차이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참됨이 드러나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할시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최기찬 전도사 / 기도 : 김이레 집사

##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 꾸러기학교

경복궁에 다녀왔어요. 단청도 보고 잡상을 보며 손오공이랑 사오정이랑 저팔계는 어디 있나 찾아도 보았어요. 경복궁에 있는 많은 동물들 중에서 매롱하듯 혀를 내밀고 있는 친구도 찾았어요. 코가 긴 불가사리도 찾아보려 했는데 못 만났어요. 교태전 문에 그려진 예쁜 그림도 보고 건청궁에서 있었던 슬픈 이야기도 들었어요. 멋진 수문장교대식을 보았어요. 궁이 엄청 넓어서 길 잃어버리겠다는 얘기도 하고 숨바꼭질하면 재미있겠다는 얘기도 했어요.

하운이 기침이 많이 나아져서 금요일부터 학교에 왔어요. 지음이는 월요일에 퇴원해서 집에서 쉬고 있어요. 퇴원할 때 2주는 걸으면 안 된다고 해서 동생 나음이는 집에서 함께 있기 힘들어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데리고 가셨어요. 2주 지나면 다시 검사를 받아야한대요.

금요일은 친구들이 아파서 못 오는 동안 미루어두었던 이튼이 생일잔치를 했어요. 생일잔치 시간에 맞추어 지음이도 학교에 잠깐 왔어요. 지음이는 의자에 앉아서만 움직여야 했지만 함께 생일잔치를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 교사 : 정승희 >

### 어린이학교

어린이 소식입니다

환절기라 여름 같다가도 가을 같다가도 한 날씨 탓에 이번주도 아픈 친구들이 많은 날들이었습니다. 결석을 하기도 했지만 등교후에 부모님이 오셔서 데리고 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번 주는 어린이 점심차리기에 대해 소개를 해볼까합니다. 한 반에 두 명 이상 결석을 하면 점심 준비가 힘들어 집니다. 전교생의 상을 퍼고 상을 깨끗이 닦은 후 밥, 국, 앞접시를 놓고 숟가락 찧가락을 놓고 부모님이 담아주시는 밥과 국, 삼찬을 놓고 방석을 깔고 반명패를 놓고 신호종을 준비하고 ... 교사리 손으로 이런 것들을 하는

### 배움과 가르침

것이 식사 준비입니다. 들기만 해도 대단하지요? 그래서 자원해서 자유시간에 노는 걸 포기하고 도우미를 자청한답니다. 내 즐거움을 잠시 유보하고 열심히 식사준비를 돕고 싶다고 자원하는 친구들이 많았던 한 주였습니다. 참 대견하고 기특하고 우리학교의 교육이 살아있구나 하는 작은 자부심도 듭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를 넘어 밖으로 넘쳐흐르기를 바래봅니다. 다음 주는 아팠던 친구들이 다 나아서 학교에서 뛰어놀 수 있겠지요~

< 교사 : 하경임 >

### 멋쟁이학교

이번 주의 멋쟁이학교는 뜨거운 햇빛과 서늘한 공기가 밤낮으로 공존하는 시기였습니다. 하늘의 구름이 높고, 노을은 어떤 때보다도 아름답게 지곤 합니다. 쾌적한 날씨에 힘입어 많은 멋쟁이들이 이곳저곳 산 주변을 돌아다니며 밤도 따는 등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최고의 화제는 단연 목요일 열린수업 시간에 있던 탁구대회였습니다. 4학년의 주도로 이루어진 탁구대회는 온갖 응원과 감탄 소리로 시끌벅적했고, 맘 흘러며 연마해온 실력들을 뽐내며 기쁨과 아쉬움을 함께 느꼈습니다. 그 중에서 4학년은 주최자로서의 입장이 있어 멋쩍긴 했지만, 당당히 실력으로 우승을 차지해서 박수를 받았답니다.

공동심화수업에서는 서울-경기 지역의 여러 지역들을 살펴보며 테마여행 연계 준비를 했습니다. 아직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단계이지만, 다들 자신들이 방문할 지역들을 살펴보며 눈을 빛냈습니다. 금요일에는 다함께 영화 <코리스>를 감상했습니다. 명작 영화 판별기 역할을 해주는 박지호 멋쟁이가 한 순간도 졸지 않고 볼 만큼, 깊은 감상을 전해주는 영화였습니다. 또한 바자회 안내문과 주문서를 전달하면서 슬슬 본격적인 준비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멋쟁이학교에 손님들의 방문과, 5학년의 귀국 예정도 함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길 함께 기도해주세요요.

< 교사 : 이어진 >

## 아버지의 마음

매년 여름이면 큰 더위와의 전쟁이 시작된다. 기억으로 작년에도 엄청 더워서 초유의 극심한 더위라고 때마다 마스크에서 그리들 열심히 떠들었는데 올해는 더 극성이다.

ამ튼 공동체 모든 분들이 잘 이겨 내시느라 고생을 많으셨으리라 짐작이 된다. 이제는 조석으로 선선한 바람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니 기분이 상쾌해진다.

올 7월경 큰아들이 로마로 워킹홀리데이를 갔다가 돌아 왔다. 취업을 위해 바로 다시 출국 할 줄 알았는데 서류상문제로 두어달 넘게 늦어지게 됐다. 아쉬움과 함께 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주어져 감사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했다.

이젠 자기 앞길을 책임질 수 있는 어른으로 살아가야하니 말이다. 자식들은 존재만으로도 나에게 엄청나게 감사할 거리인데 연감생심 욕심이 많아 기대치가 항상 하늘을 찌른다. 오로지 세 아이들이 아빠의 언행으로 인해 아픔이 없길 바랄뿐이다.

자식들이란 어디에 있는지 간에 걱정근심이 끊이지 않는 존재인가 보다. 우리 부모님 또한 그랬을 것이고... 나 또한 같은 마음인 것 같다. 어려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던 나를 조용히 타이르시던 어머니 모습이 그려진다.

어지간히 어머니의 속을 썩였던 내가 이제는 나이 육십이 됐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했다. 다행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철었던 나를 조금이나마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간다. 부디 여든까지는 가지 않길 바라며...

며칠 전에 큰애는 다시 제 자리(이태리)로 돌아가고 이제 우리 집 사모님과 철없는(?)이 사람만 한 공간에서 조심스럽게 살아간다.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주일되시길 바라며 글을 마무리 합니다.

그루터기사랑방 김중필 집사

##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정재훈 목사

찬 송 : 389

성 경 : 마태복음 15장 1-11절

말 씬 : 무엇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가?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중동의 평화를 위해>

\*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에 격화되고 있는 폭력의 상황이 안정될 수 있도록

\* 무고한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이 보호 될 수 있기를 위해서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개혁자들을 위해>

개혁자들은 평화 사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며, 세계의 분쟁지역을 찾아가서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긴급 구호활동을 펼치는 단체입니다. 현재 일하는 사역자들의 안전과 공동체의 안정을 위해서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지체들을 위한 기도>

\* 꾸러기 지음이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 이번 주 귀국 예정인 선교사 가정을 위해서

## <생활공동체 소식 >

9월에 태어난 공동식구들이 많아서 이번 생일축하 모임은 더욱 풍성했습니다. 한 공간에 살아가고 있지만 한 자리에 모여 근황도 나누고 또 함께 공유해야할 공동체의 소식들도 전하면서 한 지체임을 다지기도 했습니다.

고추는 이제 거의 모두 거두었고, 이제 겨울 작물을 심고 가꾸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간은 사랑방공동체학교 선교바자회를 위해 각자 맡은 물품들을 준비하느라 여러모로 분주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 장영미 전도사 >